

“광주는 미얀마 시민들에게 희망의 증거입니다”

광주서 미얀마 쿠데타 반대 집회하는 전남대 유학생 마웅 씨

5·18 통한 민주주의 역사, 군부에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 생겨 주말마다 유·스퀘어 광장서 집회...오월 어머니회 등 연대 큰 힘

“미얀마에 계신 아빠에게 연락이 왔어요. ‘우리(시민들)가 승리할 때까지 돌아오지 말아라. 혹시 승리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한국에서 살거라’라고... 가족과 친구들, 이웃들 모두가 지금 군부에 맞서 싸우고, 흘리며 죽어가고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아파요.”

미얀마를 떠나 한국에 온 지 2년, 전남대 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 받고 있는 유학생 마웅(여·26·Pann Ei Htwe Maung)은 요즘 SNS에서 좀처럼 눈을 떼지 못한다. 낮에는 거리에서 시민들이 총탄에 쓰러지고, 밤에는 체포당해 고문을 받는다. 마웅은 SNS 타임라인에 가득 찬 고향 미얀마의 참혹한 광경과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

마웅은 미얀마 쿠데타 반대 시위가 격화된 지난달부터 주말마다 유·스퀘어 광장서 집회를 열고 있다.

그는 “매나면 한국에 있더라도, 마음만은 미얀마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

다”며 “2월 초 이주노동자 등과 함께 4명에서 시작한 집회였는데, 지금은 30여명까지 참가자가 늘었다”고 말했다.

집회에는 미얀마인뿐 아니라 광주 시민들까지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뜻을 함께할 참가자들을 구하고 있다.

광주에 사는 미얀마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라 마땅한 단체 이름조차 없지만, 이들은 매주 한 목소리로 ‘아웅 산 수치’ 고문과 정부 주요 인사들을 석방하고, 민주주의를 돌려달라. 그리고 더 이상 누구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외치고 있다.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1988년 8월 8일 내원 장군의 군부에 맞선 ‘8888항쟁’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민주화 요구가 거세질 때마다 군부는 잔혹하게 시민들을 학살해 시위를 진압해 왔다.

희생 끝에 1990년 처음으로 총선이 치러졌지만,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국민민주연합이 승리하자 군부가 총선을 무산시켜 버렸다. 2015년에는

자유 총선을 치러 아웅산 수치가 국가 고문에 올랐지만, 그마저도 이번 쿠데타로 물거품이 됐다.

마웅은 “민주화는 할아버지 세대부터 계속 이어져 온 염원이다”며 “이번엔 다르다. 인터넷을 통해 우리 목소리가 세계로 퍼지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아픔에 공감해주고 있고, 한국 사람들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응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마웅은 특히 ‘민주화의 성지’ 광주가 미얀마 시민들에게 ‘희망’이 된다고 전했다. ‘민주주의의 승리’ 5·18을 통해 시민들이 군부의 총탄에 맞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다.

“처음엔 한국에 있는 미얀마 친구들도 5·18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광주로부터 큰 용기를 전해받고, 또 희망을 얻고 있어요. 최근 5·18 기념제단, 오월어머니회 등 5·18 아픔을 겪었던 이들이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 주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마웅은 아무도 다치지 않고, 건강한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한다.

그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힘내고 끝까지 싸우자는 말을 전해주고 싶다”며 “광주 시민 여러분들도 우리의 메시지가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도록 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남도·기아, 재난구호 이동세탁차량 적십자사에 기증



전남도(도지사 김영록)와 기아가 11일 재난구호 이동세탁차량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박홍석)에 전달했다.

차량은 2020년 전남도가 1억원, 기아가 1억원을 지원해 제작됐다. 5톤 차량이며, 1회에 70여kg의 대량 세탁이 가능하다. 대형 건조기 2대도 탑재돼 세탁·건조를 동시에 할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도내 이재민을 위한 구호활동, 도내 취약계층·독거노인 대상 무

료 세탁 봉사 등에 차량을 활용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오늘 전달한 세탁차량이 나눔과 봉사가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도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는 “재난 현장에 구호활동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해병대 함평군 전우회, 사비로 1년간 코로나 방역 봉사



해병대 함평군 전우회가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코로나19 자율방역 활동을 진행해 온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우회는 자체방역 활동팀을 조직해 매주 토요일 함평읍 공영터미널부터 함평기차역, 문장터미널, 학교터미널, 읍내 공영화장실, 노인요양 시설 등에서 방역활동을 했다. 횡수로만 지금까지 59차례에 달한다.

소속약은 함평보건소에서 지원받았으며, 이밖

에 방호복과 장비, 차량 등은 회원들의 사비로 충당했다. 전우회는 장이 열리는 날이면 시장 입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군민들에게 마스크를 무상으로 지급해 주기도 했다.

김종용 해병대 함평군 전우회 회장은 “코로나19로 부터 우리 함평군민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 생각한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방역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전남새마을금고, 다음달까지 ‘사랑의 헌혈 릴레이’



광주전남새마을금고가 오는 4월까지 ‘사랑의 헌혈 릴레이’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는 헌혈연구의 지속적 감소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수혈용 혈액이 부족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헌혈 증은 모아서 기부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호남대 사랑나눔센터 ‘힘을 내요~!’ 공모작품 전시



호남대학교 사랑나눔센터(센터장 진경미)가 2021학년도 개강을 맞아 코로나19에 지친 신입·재학생들을 위로하고 학내 구성원들 간 소통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내요~!’ 희망메시지 공모작품을 전시했다.

〈호남대 제공〉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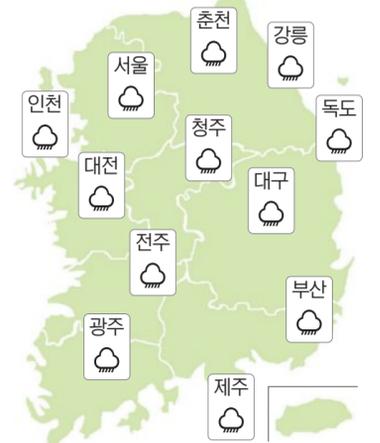
해돋이	06:48	달뜨기	06:26
해지기	18:37	달지기	17:26

우산 챙기세요

저기압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 비 내리겠다.

광주	비	8/11	보성	비	8/12
목포	비	8/10	순천	비	9/13
여수	비	9/12	영광	비	7/10
나주	비	8/12	진도	비	8/11
완도	비	10/14	전주	비	7/11
구례	비	8/13	군산	비온뒤맑	7/11
강진	비	9/13	남원	비	7/11
해남	비	9/12	흑산도	비	6/10
장성	비	7/12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서해남부	앞바다	0.5~1.5	0.5~2.0
	면바다(북)	1.5~2.5	1.5~2.5
	면바다(남)	2.0~4.0	2.0~4.0
남해서부	앞바다	0.5~1.5	1.0~2.0
	면바다(서)	2.0~4.0	2.0~4.0
	면바다(동)	1.5~3.0	2.0~4.0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6:49 19:24	01:28 14:11
여수	02:28	09:03
	15:01	21:04

◇ 생활지수

감기	뇌졸중	미세먼지
보통	보통	보통

◇ 주간 날씨

13(토)	14(일)	15(월)
5/16	4/16	5/18
16(화)	17(수)	18(목)
8/14	4/17	7/16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일림

-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 ▲청소년전화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문센터, 노인학대 신고=연제는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을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중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 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 ▲지역장애인 성인 주간간보호 서비스=월·금요일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 ▲지역주민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 5개 아파트 단지 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제공 등 062-522-9976.
-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 결혼가정아동, 경제적 사정, 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3세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222-1095,1096.

모집

- ▲사)대한노인회 광주시연합회 노인지도자대학 제34기생=65세 이상 남·여 어르신, 3월 5일까지 선착순 60명,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낮 12시, 노인지도자 자질과 교양·노년의학·경영 등 1년 과정, 수업료·교재무료 062-652-7374.
- ▲신창동 보은사 목련향장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비)=사·군·구 지부모집, 한국차매매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5522-9700.
-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스마트폰 활용

- 가능자 수시모집, 5-6명이면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062-511-0030.
- ▲인생이모작 카운슬러=인생2막 생애 재설계, 은퇴 신중년 상담 관심 있거나 교육경험 있는 48-58세 남녀 모집, 실버체조, 치매예방 놀이, 노후생활 관련 강사 등, 한국50+ 희망발전소 010-2626-5018.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